



# 문화갈증 해소 예술 감상공간 제공



군산예술의전당이 지역민의 문화갈증을 해소하고, 문화예술 향수자를 키우는 교육의 역할과 예술 감상공간을 제공하면서 지역 문화예술정책의 중심점으로 그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개관 4주년을 맞이하며 지역 복합문화시설로서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군산예술의전당의 그동안의 성과를 조명해 본다.

### ▲ 지난 4년간 지역민의 문화갈증 해소를 위한 다양한 우수작품 선보여

군산예술의전당은 1200석의 대공연장과 450석의 소공연장, 3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4년간 시에서 직접 기획한 82건의 공연 뿐 아니라 754건의 대관공연, 예술단체·개인이 직접 참여한 223건의 전시에 68만3698명이 관람했다.

이 같은 통계는 군산시민이 2~3번 정도는 예술의전당에서 선보이는 공연작품을 감상했다는 것으로, 시민의 문화향수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동안 매진홍행을 이룬 우수작품으로는 조수미 내한공연, 뮤지컬 브로드웨이42번가, 유니버설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윤도현밴드 20주년 콘서트 등이 있다.

군산시는 올해에도 국민연극 라이어3탄, 이은결의 매직쇼, 양희은 콘서트,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등 30여 편의 다양한 작품을 기획하고 있다.

### ▲ 지역예술인의 공연·전시 창작활동 활발

군산예술인의 공연·전시 창작활동이 2013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을 기점으로 2015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며 최고점을 찍었다.

예술인 활동의 성장은 예술의전당 가동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문화회관 평균 가동률인 55.4%를 훨씬 뛰어넘어 2014년 64.4%, 2015년 61.2%(메르스 여파로 소폭감소), 2016년도에는 67%로 개관이후 최고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군산예술의전당이 지역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무대로 자리매김 함과 동시에 저렴한 대관료와 완벽한 공연장 시설로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문화예술교육사업



## 조수미 내한공연·뮤지컬 브로드웨이42번가·백조의 호수 등 매진 흥행 소외계층 무료초청 비율 확대·문화누리카드 사용할 경우 20% 할인 추진

### ▲ 문화예술 향수자를 육성하는 교육의 장소

예술의전당은 어린이 토요문화학교를 통해 문화예술 향수자를 키우는 교육의 장소로서 역할을 강화했다. 2016년까지 103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무용, 클래식, 국악, 연극 등 다양한 문화감상교육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에도 250여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토요문화학교를 운영, 공연장의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미래의 관객이자 문화 애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2016년도부터 성인을 위한 1인1악기 오카렐레 하모니 사업을 진행해 60여명을 대상으로 오카리나와 우쿨렐레

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지역민들이 문화예술활동에 직접 참여토록 했으며, 2017년에는 문화 아카데미 교육반을 대폭 확대 편성해 성인 예술교육사업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 ▲ 국비 공모사업 유치로 통한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제공

공연장을 찾고 싶어도 문턱이 높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접근하기 힘들어하는 소외계층이 많이 있다.

이에 예술의전당은 소외계층에게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비 공모사업을 통한 우수한 작품을 유치해 소외계층 무료초청의 비율을 확대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경우 20%의 할인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국립오페라단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국립창극단의 배비장전 등 총 9건 3억5800만원의 국비사업을 유치한 결과 문화향수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 1만3034명(13년 2689명, 14년 2925명, 15년 3410명 16년 4000명)에게 관람의 기회가 주어졌다.

### ▲ 대형공연을 기업메세나 공동기획 유치를 통한 문화향수 증진

군산예술의전당은 군산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작품성 있는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업체와의 공동 기획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타타대우와 '명성황후', 한국지엠과 '인순이&린나이팍스' 공연을 선보인바 있다.

2015년에는 OCI(주)와 '러시아 국립아이스 발레단의 신데렐라', (주)군산도시가스과 'YB밴드 20주년콘서트'를 진행한 바 있다.

2016년에도 '유니버설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조수미 30주년 콘서트', '뮤지컬 브로드웨이42번가'를 기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했다.

기업체와의 공동기획은 우수한 대형공연을 유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또한 수도권 대비 50%정도의 저렴한 관람료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 예술의전당을 통해 변화된 군산시민의 문화의식 - 성숙한 공연장 예절 정착

공연장에서의 관람예절은 시민의 문화수준을 판가름 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개관 초기 예술의전당에서 어려웠던 점은 시민들의 공연예절을 정착 시키는 것이었다.

절제되지 않은 공연관람 태도를 개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개관 4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는 지정좌석제, 음식물·꽃다발 반입금지, 휴대폰 사용금지 등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줄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공연예절에 대한 인식변화의 결과이며 군산시민의 문화수준이 그만큼 성숙되었다는 증거다.

(/군산=문정곤 기자)

8천만 세계 태권도인들의  
합성을 **태권도원**으로!

73억 세계인들의  
열기를 **무주**로!

**2017 MUJU WORLD CHAMPIONSHIPS TAEKWONDO**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기간 : 2017년 6월 22일~30일 | 장소 : 태권도원 **muju**